

병자호란의 두 가지 기억 양상

음영철¹⁾

Two Aspects of Remembe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Yeong-cheol Eum¹⁾

요약

본 연구는 병자호란의 두 가지 기억 양상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병자호란에 관한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한 문화적 기억 장치인 김훈의 『남한산성』과 유하령의 『화냥년』이다. 연구 방법론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작중 인물의 담론을 중심으로 서사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산성』은 유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병자호란 당시 지배층의 공식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주류 기억 양상을 보여준 소설이다. 둘째, 『남한산성』은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서 47일간 농성된 역사기록을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청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조선인 피로인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셋째, 『화냥년』은 상사성에 기초해서 병자호란 당시 민족수난사를 피로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망각의 서사를 복원한 측면이 있다. 넷째, 『화냥년』은 서사적 관점에서 볼 때, 플롯이 허술한 것과 인물의 전형성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역사소설로 보기에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호란의 기억방식을 기존의 왕조수난사에서 민족수난사로 바꾼 점은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병자호란, 『남한산성』, 『화냥년』, 기억, 유사성

Abstract

In this paper, two aspects of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are studied. The two novels, *Namhansanseong* written by Kim Hoon and *Hwaryangnyeon* written by Ryoo Ha Ryung are selected as they are kinds of cultural devices currentizing past memories about the war. The research methodology is analyzing the aspects of narration coring the characters' discourse. The result of the study follows; firstly, *Namhansanseong* shows the mainstream aspects of memories in that it deals with the official record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similarity principle. Secondly, it describes the sit-in battle for 47 days, focusing on historical figures. However, the novel excludes the people forcibly hauled to China. Thirdly, *Hwaryangnyeon* deals with people's history of ordeal, putting the people forcibly hauled in the center, recovering the history disappearing into oblivion, based on similarity. Lastly, however, the novel, *Hwaryangnyeon* is poor in plot, goes out of the typical criteria of character and so is not enough to be called as a historical novel. Nevertheless, it changes the way of remembering the war from the eyes of the dynasty to those of people, which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words: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Namhansanseong*, *Hwaryangnyeon*, memory, similarity

Received (November 26, 2018), Review Result(December 17, 2018)

Accepted(January 5, 2019), Published(January 31, 2019)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Korean Studies, Sahmyook University. Hwarangro 815, Nowon-gu, Seoul, Korea. email: sangoma@syu.ac.kr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the Sahmyook University in 2018.

1. 서론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중심 무대는 조선이었고, 선조와 광해군과 인조가 집권하던 시대였다. 그 당시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였고 누루하치가 통치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켜 동아시아를 전쟁 속에 휘말리게 하였다. 조선 백성들은 1592년부터 1637년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어야만 했다[1]. 네 번의 전란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임진왜란이었다면 가장 치욕스런 전쟁은 병자호란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이라는 뼈아픈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만 했다. 한국 근세사에서 병자호란만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국난극복의 상징이었다면, 병자호란은 민족치욕의 반면교사였다. 그럼에도 병자호란을 기억하는 방식은 전란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병자호란을 되풀이 호명하는 것은 난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이 집단기억을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2]. 병자호란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에 해당하는 병자호란의 실상을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라 말했듯이 병자호란의 실상을 기록하는 과정 또한 정치권력이 개입하고 작동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배제된 역사는 구전되는 과정에서 왜곡 또는 망각된다. 망각된 역사를 공고히 하는 것이 민족적 기억이다. 민족적 기억은 특정한 신화적 소재로 '만들어진' 특수한 기억이며, 머나 먼 '전투'의 특정한 과거를 강조함과 동시에 다른 과거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3]. 따라서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인정받는 공적 기억과 달리 민족적 기억에 기초한 전란 서사는 대항기억의 성격이 짙다[4]. 지배층의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백성의 언어는 병자호란 패전의 역사를 개인기억에 의존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5].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로 엮어 만든 '이야기'로 볼 수 있다[6]. 따라서 '사실의 기록'은 역사서술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병자호란을 문자로 기록한 모든 텍스트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기억의 되새김질이기에 현재사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는 시간의 원근법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보이고, 또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7].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지정학적 구조에 따라 주변 나라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 17세기 초와 같이 중국의 왕조가 교체되는 전환기에는 우리 민족에게 존재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전란과 같은 과거의 흔적들은 시간 속에서 소멸의 길을 걸었지만, 집단기억으로서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였다. 따라서 전란의 비극을 간직한 병자호란은 국제정세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 때 호출되는 기제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역

학 구조에 따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때 중요한 것은 기억과 망각의 관점에서 병자호란을 되새기는 것이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능력으로, 모두 굴절된 기억이고 구성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억은 언제나 '사회적 틀'속에서 형성되기에 집단기억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9]. 또한 기억에는 망각이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현재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기억은 처음에 지녔던 연속성과 정체성을 상실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것이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하여 망각되는 것이다. 병자호란의 주된 기억 방식은 역사에 기록된 집단적인 기억을 지배층의 언어로 전수하고 보존한 것이었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병자호란의 치욕은 인조가 1637년 1월 30일에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弘他時) 앞에서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를 행한 것이다[10]. 그러나 관점을 달리한다면, 병자호란 최대의 치욕은 왕조수난사가 아닌 민족수난사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는 화냥년으로 비유되는 '피로인(被擄人)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기의 피로인 수가 9만~14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병자호란 무렵의 피로인 수는 50~60만 명으로 추정된다[11]. 따라서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사건은 대상과 상징적인 공간을 달리해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얀 아스만이 말했듯이 인간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기원과 목표를 설정할 목적으로 기념비적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했다[7]. 본 연구는 엄격한 의미의 역사와는 다르게 기억된 과거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억사(mnemohistory) 연구에 해당한다[12]. 기억사는 과거 해석의 통시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조사하기에 상호텍스트성을 중시한다. 텍스트와 콘텍스트 간의 관계성을 상호텍스트성이라 할 때, 역사적 사건인 병자호란을 다룬 소설들은 역사적 기록에 대한 상호텍스트성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연구자는 병자호란에 관한 과거의 기억을 계속해서 현재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김훈의 『남한산성』과 유하령의 『화냥년』을 대상으로 서사전략에 따른 병자호란의 두 가지 기억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역사 기억방식인 지배층의 언어를 다룬 『남한산성』과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바라본 『화냥년』의 서사문법을 비교·연구한 것이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소설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작중 인물을 중심으로 병자호란의 기억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시점에서 병자호란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다시 정립하고자 한다.

2. 소설 『남한산성』에 나타난 병자호란의 기억 양상

도전과 응전의 패러다임을 창안했던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 과정을 자연 환경과 인간적 환경으로 분류하고, 환경이 주는 도전을 1) 척박한 땅이 주는 자극, 2) 새로운 땅이 주는 자극, 3) 충격이라는 자극, 4) 압력이 주는 자극, 5) 제재가 주는 자극으로 범주화했다[13]. 우리에게 병자호란은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사 쇠락의 증후로 볼 수 있다. 조선 사회는 개국 이후 세종에서 성종 때까지 안정기를 누린 다음 연산군 이후 침체기로 들어섰다[14]. 응전의 성패는 '소수의 창조적 천재'들에 의해 출발한다. 비창조적 다수자가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고 따르는 현상을 '미메시

스(mimesis)라고 할 때, 창조적 소수자가 미메시스를 창출하면 사회는 응전에 성공하고 문명은 성장할 수 있다. 그 반대로 미메시스를 철회하는 과정을 '네메시스(nemesis)'라 한다. 네메시스가 발생할 때는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력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타락한 경우이다[6]. 병자호란이 있기 전부터 인조를 포함한 조선의 지배층은 청나라의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소수자로 백성을 이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전쟁의 참상은 백성의 몫이 되었다.

1623년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명나라를 '봉전지은(封典之恩)'으로 섬겼다. 봉전지은이란 제후국의 임금으로 책봉해준 은혜란 뜻이다. 그러나 반정의 농공행상을 따지는 가운데 발생한 이괄의 난은 인조의 개혁의지를 약화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조를 포함한 조선의 지배층은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였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란을 맞게 되었다[10]. 인조는 대외적으로 '친명배금(親明拜金)'을 내세웠으나 후금(청)을 대항할만한 힘이 없어 배척하지는 못하였고 실제로는 현상유지책을 제시했다[15]. 그런데 조선의 대외정책과 달리 후금의 흥타이지는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 정벌만이 자신의 미약한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과 후금과의 형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1636년 12월 9일 후금은 압록강을 건넜고 12월 14일 서울을 점령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 농성하였다. 강화도가 함락되자 남한산성도 무너졌다. 1월 30일 인조의 삼배구고두로 상징되는 치욕적인 항복과 함께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달리 병자호란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청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조선인 피로인(被擄人)이었다. 피로인 문제야말로 병자호란이 남긴 후유증이 가장 컸다는 점에서 역사의 비극이었던 것이다[16].

김훈의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지배 권력의 내면을 그렸다는 점에서 소설로 풀어 쓴 역사소설의 성격이 짙다[17]. 우리는 그의 소설을 통해 좁은 공간인 남한산성에서 권력의 암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서사 양상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의 서사 공간은 주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서사 양상은 주로 인물들의 대화로 진행된다. 소설 첫 문장은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로 시작한다[17].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강화도로 가야만 했던 정황이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조선의 지배계급인 인조와 신료들은 준비 없이 병자호란을 맞이해야 했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야 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볼 때 병자호란의 비극성을 배태시킨 비극의 땅이 되었다. 남한산성은 패전으로 기억되는 치욕의 공간인 것이다. 『남한산성』은 인조가 항복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성 안의 스토리인 것이다[18]. 따라서 소설에서의 서사 시간은 인조가 청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몽진하는 병자년 겨울부터 출성해서 흥타이지에게 항복하기까지의 47일 간이다. 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을 감안할 때, 공식기록인 「인조실록」과 사적인 기록인 최명길의 「병자봉사(丙子奉事)」와 김상헌의 「남한기략(南漢紀略)」에도 척화와 양화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19]. 특히 나만갑의 「병자록(丙子錄)」에는 날짜별로 병자호란의 기록을 소상히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남한산성』이 지배층의 역사 기록에 충실했음을 보여준 증거라 할 수 있다 [20].

소설 『남한산성』의 서사 대상은 주화파인 이조판서 최명길, 척화파인 예조판서 김상헌, 그 사

이에서 군왕의 눈치를 보는 체찰사를 겸한 영의정 김류, 대장장이 서날쇠, 수어사 이시백, 청나라 장수 용골대와 그의 통역사 정명수를 등을 들 수 있다. 서사의 핵심은 임금이 처한 상황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현실론의 최명길과 명분론의 김상헌의 대립이다. 이들의 말을 통해 병자호란 당시 진퇴양란에 빠진 조정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최명길과 김상헌은 병자호란 당시 중립을 지키지 못한 조선이 겪어야만 했던 혼란상을 대변한다.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이들 두 공신은 정묘호란 이후 부모의 나라인 명과 형제의 나라인 청 사이에서 명분과 실리를 좇았으나 두 가지를 다 잃게 만든 장본인으로 기억된다. 최명길은 “상헌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실리를 좇을 것을 군왕께 주청한다[17]. 그러나 김상헌은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최명길을 폄훼한다[17]. 닫힌 공간 남한산성에서 진퇴양란에 빠진 병자호란의 서사 양상은 두 신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욕이나 죽음이나의 선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고립된 산성 안에서 인조와 당상, 당하들은 오직 말로써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21]. 나만잡은 최명길을 두고 “취새끼와 같이 간사함은 차마 이빨에 걸어들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으나, 척화를 주장했던 오달제와 윤집 두 사람은 “열렬한 장부라 할만하다.”라고 하였다[20]. 이로 보아 당대 최명길은 간사한 모략가로 기억되었으며 사람들로부터 냉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서 임금은 최명길의 말에 따라 출성하게 된다.

주변 인물인 서날쇠, 이시백, 용골대, 정명수 등은 이 소설에서 서사를 풀어가는 주변 인물들이다. 특히 서날쇠는 병자호란 당시 천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날쇠는 『병자록』에서 서훈남으로 나오는 인물로, 임금의 격서를 지방군에 나르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평소에는 직업이 없어서 무당 노릇을 하거나 대장장이로 업을 삼기도 하였다고 한다[20]. 조정은 이 천민에게 종이품 가의대부(嘉義大夫)를 내렸지만 사관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17]. 정명수는 은산의 관노로 후금에 투항한 인물이다. 청과 조정 사이를 통역하여 출세한 인물이고 조선 임금을 겁박할 만큼 권력의 실세 자리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다.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버림받은 그는 반역자로 기억된다. 이 소설에서 서날쇠와 정명수는 천민 출신이었으나 정반대로 기억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김훈의 『남한산성』에 나타난 서술방법상의 특징은 남한산성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인조, 최명길, 김상헌, 김류로 대표되는 조선의 지배층이 청나라의 칸과 용골대의 항복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부 묘사는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는 효과가 크다. 인조가 남색 용복을 입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삼배구고를 행한 것은 분명 치욕적인 사건이고 병자호란의 기억 중에서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라 잃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심양으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은 치욕을 넘어서는 참상이 아닐 수 없다. 나만잡은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서 길에 쌓여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눈이 찡그려졌다.”라고 하였고, 피로인으로 끌려가는 “사대부의 처첩과 처녀들은 차마 얼굴을 드러내놓고 남을 볼 수 없어 다들 옷을 머리에 뒤집어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20].

소설 『남한산성』은 피로인 문제에 대해 소설 말미에 일화로 비중 없이 처리하고 있다. 정명수의 수레에 탄 여성들은 마치 화장을 질게 하고 긴 여행길에 오른 모습으로 그렸다. 『남한산성』

은 전형적인 전쟁서사라기보다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임금과 신료들의 대화가 중심이기에 여러 명의 인물 군상이 등장한다[22]. 김훈의 역사소설은 지배층의 기억 방식을 역사적 사료에 의거하여 세밀하게 서술하되, 인물의 심리묘사와 남한산성 안에서의 배경묘사를 돋보이게 한 것이 장점이다. 김훈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병자호란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성 안 사람들인 지배층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다.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김훈의 『남한산성』은 「인조실록」의 부연설명이라 할 수 있다[23].

이순신의 내면을 통해 전란의 비극성을 드러낸 독백적 소설 『칼의 노래』와 달리 대화적 소설인 『남한산성』은 다수 인물의 시각을 통해 병자호란의 참상을 지배층의 언어로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다수자라 할 수 있는 민중의 목소리는 나루터에서 만난 김상헌과 사공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간헐적으로 제시된다. 역사 앞에서 희생당한 민족,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여성과 아이들의 목소리는 부가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병자호란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작품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병자호란의 기록들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수난사를 기억하고자 했다면 서사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소설 『남한산성』은 미시적 관점에서 병자호란의 주역들인 인조, 최명길, 김상헌 등의 대화를 중심으로 병자호란의 지배 담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역사의식 면에서는 병자호란의 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쟁 서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3. 소설 『화냥년』에 나타난 병자호란의 기억 양상

역사소설 중에서도 일군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기존의 역사관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쓰이며, 반대로 어떤 작품은 정사가 말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 읽기와 쓰기를 시도한다. 예컨대 홍성암의 『남한산성』은 기존의 역사소설이 보여주었던 영웅화된 인물이 아닌 민중사적 시각에서 함몰되었던 병자호란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19]. 본문에서 다룰 유하령의 『화냥년』은 피란민인 강과 선이라는 중심인물을 통해 병자호란 이후의 민족수난사를 다루고 있다[24]. 또한 이 소설은 피로인인 화냥년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병자호란을 여성적 시각에서 보게 한다. 화냥년이란 말은 임진년 전쟁 때 조선을 도와주었던 명군들에게 몸을 내주거나 욕을 당했던 여자들을 중국말로 비칭하면서 유행하였다[24]. 『남한산성』이 지배층인 남성 중심의 언어였다면 『화냥년』은 병자호란 당시 역사의 기록에서 망각된 여성의 말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기에 여성의 언어가 도드라진 소설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의 역사는 역사의 기록에 ‘열녀’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지만, 열녀가 아닌 여성은 훼손녀로 기억되어 부정되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선’이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병자호란을 달리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헤이든 화이트가 언급했듯이 역사는 하나의 텍스트이며 동시에 담론이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체에 포함시키는 반면 어떤 이야기는 그 이야기체에서 배제시킨다[25]. 병자호란이 낳은 이야기에서 배제된 것은 무엇일까? 병자호란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강

화도로 피난을 가지 못한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 주화파와 척화파로 갈리어 논쟁을 벌이다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삼배구고두를 행하면서 항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해석은 민족주의 입장에서 병자호란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역사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기억의 이면에는 지배층의 무능으로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만 했던 피지배층의 담론은 역사의 행간에서나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병자호란의 '언어적 전환' 과정에서 청나라로 끌려가야만 했던 조선 포로들의 비참한 실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병자호란과 같은 역사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하령의 『화냥년』을 통해 역사 기억 방식을 고찰하는 것은 병자호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의가 있다.

유하령의 『화냥년』은 병자호란 당시 묻혔던 민족수난사를 발굴하고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망각의 서사를 복원한 측면이 있다. 조선인 포로들은 한 번은 청나라에 의해 또 한 번은 조선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심양으로 끌려간 50만 명에 가까운 조선인 포로들은 당시 피로인으로 불렸는데 그들은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비국민 취급을 받아야만 했다[15]. 역사가 망각과 기억에 따른 메타 서술이고, 역사소설이 공식적인 역사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한 메타 담론을 담는 과정이라면, 유하령의 『화냥년』은 병자호란 당시 피로인들이 심양으로 끌려가는 과정을 사료에 의거해 밝힌 르포르타지에 가까운 소설이다. 병자호란 당시 성 안의 기록인 『남한산성』과 달리 『화냥년』은 성 밖의 이야기이다. 과거의 흔적들은 시간 속에서 사라졌지만 집단기억으로서의 역사는 소멸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성적 도구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피로인 화냥년의 존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이다.

청군에 붙잡힌 조선인 포로들은 석 달을 걸어 심양으로 갔다. 포로들 가운데 여성들의 고통은 특히 더 비참했다[26]. 청군은 젊고 고운 조선인 여성들을 능욕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여성들은 죽어야만 했다. 소설은 1637년 5월 심양 속환시장에서 시작된다. 『화냥년』은 병자호란이 끝나고 조선의 군주와 신하들이 절개와 지조를 저버렸고, 피로인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비국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속환가를 내야만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사대부를 포함한 양반계층이 대다수였다. 김류는 첩의 딸을 속환시키기 위해 용골대 등에게 “만약 속환시켜 주시면 천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20]. 소설에서 “양반놈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해. 언제 우리가 그놈들 덕 봤더냐?”라고 말한 대목은 병자호란의 피해자가 다수의 민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24].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란 서사에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는 다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민중의 극적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의 지배층은 자기 자식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 속환 가격을 인상시켰으며 다수의 백성은 버려진 존재였다. 1637년 4월, 홍타이지는 도르곤 등 신료들에게 호녀들의 투기에 따른 조선인 여성들에게 가해진 혹독한 고문을 금할 것을 경고하였다[26]. 이로 볼 때, 병자호란이 끝나고 피로인들의 생명을 지켜준 것은 조선의 지배층이 아닌 청의 지배층이었다. 소설에서는 심양에 끌려온 피로인 중에서도 주희인을 제외하면 여성 포로들에 대한 고난이 더 심했음을 볼 수 있다.

속환가를 주고 풀려난 여성들은 훼손한 부녀자로 취급되어 조선에 와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심양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들에게 죽어서라도 몸을 깨끗이 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살아 돌아온 여성 포로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주인공 선이 조선에 돌아와서 맞닥뜨린 것은 가문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조경호의 냉담한 반응과 홍제천의 세정의식이었다. 소설에서는 “오죽했으면 조정에서도 속환된 양반가 여인들에게 소복을 입혀 홍제천 냇물을 건너오게 하는 결정을 했을까. 그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실절한 여인네들을 그렇게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양반가의 고육계.”라고 설명하고 있다[24]. 그러나 선이는 홍제천에 들어갔다가 되 돌아온다. 선은 조정에서 거행한 의식을 거부한 것이다. 소설에서 별감의 아내는 “실절한 것은 조선 전체인데 왜 여인네들만 가지고 이러십니까?”라고 반문한다[24]. 가족들은 “뭘 소리를 하는 거야? 속환되어 온 것도 모자라 하는 짓이 완전 화냥년이구먼.”이라고 소리친다[24]. 홍제천은 절개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피로인 여성에게는 2차로 성적인 수치심을 갖게 만든 여성 수난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여성수난사의 입장에서 볼 때, 병자호란의 비극을 기억하는 장소는 삼전도가 아닌 홍제천이어야 한다. 사지에서 풀려난 아녀자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2차 성적 학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청나라에서 1차 성적 학대를 받아야만 했던 조선의 여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화냥년 취급을 받고 그 자식들이 ‘호로(胡虜)자식’이라 불린 것은 병자호란이 당시에 세태를 반영한 언어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병자호란의 비극은 이러한 언어적 전환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이 있어 청나라에 능욕당한 여자들의 자손은 과거에 응할 수도 관료가 될 수도 없었다[24]. 따라서 현재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청나라에 끌려갔던 조선시대 피로인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병자호란의 망각 대상이 아니라 기억 대상이 되어 전란의 참상을 증언해주고 있다.

전란 서사에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란의 사후적 의미부여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27]. 사후적 의미와 연계된 병자호란의 기억방식은 유사성과 상사성에 기초하여 재생산되었다. 상사성은 “원본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복제와 복제 사이의 닮음과 차이”에 주목한다[7]. 달리 말해 원본과의 일치를 주장하는 유사성과 달리 상사성의 미학은 차이를 중시한다. 상사성은 닮음의 관계를 반복하면서 기존 텍스트로 존재하는 역사와의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현대 예술은 모사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상사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유하령의 『화냥년』이 주목받는 것은 기존의 병자호란 담론을 재현하는 『남한산성』과 다른 시각인 여성의 관점에서 상사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각이 역사적 환경에 따른 보편성을 갖게 되면 ‘문화적 기억’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현재까지는 병자호란을 기억하는 주류는 『남한산성』이 우세하다. 이제 『화냥년』에서 알 수 있듯이 병자호란의 기억방식은 왕조수난사가 아닌 민족수난사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김한민 감독의 <최종병기 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족수난사에서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화냥년』이 다뤄야 하는 문제가 남

아 있다. 이 소설의 단점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 나타난 플롯의 허술함에 있다. E.M. 포스터가 말했다 듯이 플롯 역시 인과 관계를 강조하는 서술이라는 점에서 이강이 수흐를 죽이는 장면이나 선이 중심이 되어 '화냥년 마을'을 일구는 이야기는 서사의 비약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선의 두 아들인 아르르와 강트르르의 존재 역시 작위적인 느낌을 주며, 작품 전체의 유기적인 서사와 관련해서 볼 때, 행복한 결말을 위한 작가의 의도가 전면에 부각된다. 무엇보다 작품 결말부에 나온 이강이라는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신화적 인물에 가깝게 묘사함으로써 역사소설에서 중요시되는 인물의 전형성에서 벗어난다.

유하령의 『화냥년』은 플롯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소설은 기존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기억 방식에 제동을 걸기 때문이다. 전쟁 포로인 피로인이 잊혀진 존재로 기억되기보다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병자호란의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극적 표현은 특수한 기억의 성향과 조우할 때, '문화적 기억'이 되기 싶다고 한다[27]. 병자호란의 전통적 기억방식인 '삼전도의 굴욕'이 아닌 '화냥년의 비극'으로 기억방식을 전환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과 정치, 문화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기억방식은 인조와 소현세자에서 벗어나 조선인 포로였던 피로인 여성과 그 자녀에게 모아져야 한다. 조선인 포로는 지배층인 사대부와 달리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병자호란 당시 피로인을 기억하는 '문화적 기억'은 『화냥년』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유하령의 소설 『화냥년』은 병자호란 이후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여성 '호모 사케르'로 살아야만 했던 조선시대야말로 야만의 시대였음을 기억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깊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전란의 비극을 간직한 병자호란은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되었다. 역사가 정치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옹호하는 서사로 구성되는 한에서, 모든 역사는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7]. 역사는 기본적으로 기억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집단기억으로 기억되지 못한 것은 왜곡되거나 망각되었다. 망각된 역사를 공고히 하는 것이 민족적 기억이라는 점에서 병자호란은 두 가지 양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첫 번째 양상은 병자호란을 왕조수난사로 보는 것이다. 김훈의 『남한산성』은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 47일간 항쟁한 역사기록을 소설화한 것이다. 이 관점은 지배층이 원하는 집단기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서 삼배구고두를 행하는 장면을 재생산하여 민족기억으로 남게 만든다.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산성』은 유사성에 기초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전승하고 있다. 역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상징하는 공간은 삼전도이고 치욕적인 사건은 인조의 삼배구고두이다. 김훈은 남한산성이라는 좁은 공간을 배경으로 인조와 조선의 신료들이 벌이는 치욕과 죽음에 관한 담론을 대화로 풀어내었다. 나만감의 기록과 달리 이 작품에서 최명길은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 서술방법상의 특징은 조선의 지배층이 청나라 칸과 용골대의 항복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세부 묘사는 역사적 기억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소설의 문제점은 미시사적 관점에서 지배층의 언어적 전환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에 비해 병자호란의 참상을 겪어야만 했던 피지배층의 서사화 과정이 소략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전후 과정에 대한 소설적 접근이 미흡한 것은 역사인식의 결핍으로 보인다.

두 번째 양상은 병자호란을 민족수난사로 보는 것이다. 유하령의 『화냥년』은 역사의 기록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여성의 역사를 복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의 언어적 전환 과정에서 유사성이 아닌 상사성을 추구하였기에 조선 포로들의 비참한 실상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병자호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화냥년』은 병자호란이 끝난 시점에서 본격적인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 소설의 서사 대상은 심양으로 끌려간 50만에 가까운 조선인 포로들이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인 포로들은 ‘호모 사케르’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다. 특히 여성 피로인은 이중으로 억압을 받아야만 했다. 심양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성노예로 취급받았던 여성들은 속환가를 주고 풀려났으나 홍제천에서 세정의식을 치러야 했다. ‘열녀’만이 기억되는 현실에서 병자호란 당시의 여성들은 ‘화냥년’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지금도 ‘호로 자식’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는 집단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 이 작품의 문제점은 결말 부분에 나타난 플롯의 허술함과 신화적인 인물 창조이다.

얀 아스만이 지적했듯이 인간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기원과 목표를 성정하기 위해 기념비적 역사를 만들어낸다. 본고에서는 병자호란의 두 가지 기억 양상이 지배층의 언어에 충실한 『남한산성』과 피지배층의 언어적 전환을 다룬 『화냥년』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왕조수난사와 민족수난사(여성수난사)로 기억하고자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관심과 이해도에 따라 병자호란은 연속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상실하기도 한다. 기억은 언제나 구성된 기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Jeong Doo Hee & Lee Kyung Soo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ar of Three East Asian Nations, Humanist, 2007
- [2] Lee Ji Won, The Causal Complexity of War and Tragic Narrativ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5), Vol.55, No.2, pp.45-73.
- [3] Kim Young Mok, Historical Drama and Construction of Past
Between Remembering and Oblivion, Edited by Choi Moon Kyu, Remembering and Oblivion, Bookworld, (2003), pp.141-200.
- [4] Kim Jeong Nyeo, The debate on the responsibility about the Manchu war of 1636 and narrative of the memory -The King Injo's memory and Gangdomongyurokas the fight memory, Korean Studies (2010), Vol.35, pp.201-235.
- [5] Oh Soo Chang, Distortion of Memories of the Manchu Invasion in 1937,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2017), Vol.104, pp.53-81.

- [6] Yu Si-Min, History of Writing History, Dolbegae, (2018)
- [7] Kim Ki Bong, Historia Quovadis, Booksea, (2016)
- [8] Kim Ki Bong, Building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History, Puronyoksa, (2006)
- [9] Hwangbo Yeong Jo, Politics and History of Memory, Youkrack, (2017)
- [10] Han Myung Gi, Comment and Explanation of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Puronyoksa, (2013)
- [11] Lee Jong Pil, The attributes of Joseon captiv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Mi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and Kimyeongcheoljeon,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2014), Vol.63, pp.5-35.
- [12] Jan Assmann, translated by Byeon Hak Su, Moses, the Egyptian, Greenbee, (2010)
- [13] A.J.Toynbee, translated by Hong Sa Joong, Study of History I, Dongsubhbook, (2016)
- [14] Kim Ho Gi, Spirit of the Times and Intellectual, Dolbegae, (2012)
- [15] Han Myung Gi, First and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and East Asia, Puronyoksa, (2009)
- [16] Han Myung Gi, Re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experienced by the Captives, around the time of Manchu's invasion of Korea in 1636, historical criticism (2008), Vol.85, pp.202-234.
- [17] Kim Hoon, Namhansanseong, Hakgojae, (2007)
- [18] Kim Joo eon, The Problem of Time in Kim Hoon's Novel,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2012), Vol.54, pp.235-253.
- [19] Kim Myung Seok, Reading of the History of our Novels in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Namhan-San Fortress> by Kim Hoon, Journal of Korean Literary Criticism (2009) Vol.29, pp.5-30.
- [20] Na Maan Kap, 1636 Namhansanseong Diary of the War, juluesung, (2017)
- [21] Jeong Kun Hee, Ahistoricity of Kim Hoon's Historical Novel, Kwanak Written and Spoken Language Study (2011) Vol.36, pp.197-218.
- [22] Kim Youn Jung,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Historical Transformation in Kim Hoon's Historical Novel,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2017), Vol.75, pp.181-203.
- [23] Lee Kyou Hyeon, Resume : L'Utilisation de L'histoire et L'écriture dans Les romans-Autour de Namhansanseong et Vaste est La prison, Study of French Culture (2007), Vol.17, pp.129-173.
- [24] Yoo Ha Ryung, Trollop, Puronyoksa, (2013)
- [25] Jo Ji Hyung, Searching for Historical Truth, gimmyoung, (2006)
- [26] Shim Young eui, Politics of Sexuality Discourse in Chosun Dynasty,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5), Vol.16, pp.1-22.
- [27] Lee, Min heui, A Study on "Dramatic Expression" as a Method of Remembering War and Meaning of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丙子胡亂] Narrative,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6), Vol.176, pp.419-445.